벨라루스 학생과 대학생이 대한민국에 대해 배우는 내용

(사회, 정치제도의 이론, 정치 경영 과목을 바탕으로)

N.A. 안타노비치,
정치학 박사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교수
ninaant@rambler.ru

현재 학생을 위한 사회 과목은 인간의 본질, 사회의 문화, 개인간 소통,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 활동의 개별 주제가 다뤄지기도 한다. 이에는 사회(사회의 구조), 경제, 정신, 정치법 등의 분야가 있다. 11학년 교과서의 법과 정치 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벨라루스 헌법, 주요 분야 법률로 부터 학생들은 벨라루스 정치(벨라루스 사회적 모습, 사회 경제적 모델, 국가 혁신발전, 지역, 농업, 국가, 종교 정책, 문화의 발전, 건장 증진, 청소년 정책)를 배우게 된다. 개별 주제는 현대 세계에서 벨라루스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사회 과목은 벨라루스 학교에서 9, 10, 11학년에 걸쳐 소개된다.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는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11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만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다. “국제 관계의 체계”라는 20단원, 그리고 “벨라루스 공화국 발전의 전략적 방향”이라는 과제 내용이 그것이다.

파트20은 국제 관계의 개념과 형태를 다루고 있으며 벨라루스 공화국의 현대 국제 관계 체계에서의 위치를 다루고 있다. 204-205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 우선적 대외 정책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중국 간 관계는 장기적이고 상호 이익 보장을 지향하고 있다...”[1)]

여기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관한 간접적인 언급이 나타나 있다. 교사는 관계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국가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과제로 부여한다. 이는 아태지역의 국가 발전 상황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3-244쪽의 과제 내용 중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어떤 국가와의 협력이 현재 우리 국가 이익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중 14위에 남한이(1.6%) 표시되어 있다. (1위 러시아 77.8%, 2위 CIS 국가 37.1%) 중국이 6위(23.5%), 일본은 9위(10.4%)이다. 교과서에서 소개된 순위의 마지막에는 북한 16위(1.2%), 이라크 17위(0.7%)로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정보들은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나타나 있다.
대학교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는 더욱 폭넓게 소개되어 있다. 정치학 과목을 예로 들면 벨라루스 국립대학교 법학 대학 정치학 전공의 대학생은 정치 체제의 이론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 체제에서의 현대화 요소를 배우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한민국 정치체계 변화를 다루고 있다.
정치경영 대학교 과목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과 발전 단계, 전자정부 준비 지수를 다루는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선두 위치에 있음을 다루고 있다. 2014년 전자정부 준비 지수가 UN 평가에 의하면 0.9462이며 대한민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의 지수는 0.6053이며 55위에 있다. 러시아의 경우 27위(0.7269)를 차지하고 있다[2]. 2012-2013년 오태동 교수는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산하 행정 아카데미에서 전자정부와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학교 사회 과목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 확대의 가능성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은(개선과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사회, 내부 구조, 기능 작동, 기준, 가치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류의 미래 발전에 관한 이해, 국가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는 국제 관계와 지정학 파트(지리적으로 작은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의 예), 벨라루스 공화국 대외 정책의 다방면성, 다양한 국가 발전의 특성, 정보사회 발전의 전망(국가 전체, 개별 도시 행정에서의 전자정보의 사용, 대한민국에

서 전자정부 발전의 예) 등이 소개될 수 있다.

산업 발전 과정과 산업화된 이후의 사회 특성, 경제 체계를 다루는 단원에서 대한민국의 현대화 과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10학년 교과서에서 경제 체제상 국가는 농업, 산업, 산업화 이후 국가로 나뉜다[3]).

또한 대한민국의 현대화 경험은 벨라루스에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달성하였다. 경쟁력 있는 경제(조선업, 기계산업, 전자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현대적인 도시건설(U-city), 혁신적인 교육체계 발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의 회원국이다. 부산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Robert E Kelly 교수의 의견은 흥미롭다. 켈리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지역 축구에서 승리국이 되었다"(«The days of Korea as geopolitical football of the region are over»).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지정학적 딜레마와 부딪혔다. 한국은 3대 강국에 둘러싸인 중견국이었다(a middle power)[4].

벨라루스 공화국에서는 행정 분야 전략 개발 및 이행, 전자정부의 기술 사용 경험이 중요하다.[5] 이들 주제는 벨라루스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대학교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이다.

---

1) Обществоведение : учеб. пособие для 11-го кл. обще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й с рус. яз. обучения / М. И. Вишневский [и др.]; под ред. М. И. Вишневского. – Минск : Нар. асвета, 2010. – 270 с.

2)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2014. Electronic resource. 2015. [Mode of access] –http://unpan3.un.org/egovkb/en-us/data-center.aspx

3) Обществоведение: учеб. пособие для 10-го кл. общеобразо-ват. учреждений с рус. яз. обучения / М.И. Вишневский [и др.]; под. ред. М. И. Вишневского. - Минск: Адукацыя і выхаванне, 2009. - 240 с.

4) Robert E Kelly. Modernization has Revolutionized Korean Grand Strategy. Electronic resource. – . [Mode of access] – https://asiansecurityblog.wordpress.com/2015/03/03/modernization-has-revolutionized-korean-grand-strategy/

5) Южная Корея создаст фонд для развития электро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Беларус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29.05.2015. [Режим доступа] – http://www.pravo.by/main.aspx?guid=169023